예수님의 사도와 객식구

(마10:1-15)

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4.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도와 객식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제목이 조금 불균형적인 것 같습니다.
'객식구'라고 하는 특별한 의도를 담고 있는 단어가 들어왔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식구와 객식구'라든지 '예수님의 가족과 객식구'라고 해야 어법상 대칭구조를 이루면서 자연스러울 텐데, '사도와 객식구'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어 집니까?
반드시 가족인 자들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지지 않고 객식구입니다, 객식구.

교인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중에 객식구가 있습니다.
오직 가족만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 또 이 땅에서조차도 천국의 티를 낼 수 있는 삶, 천국의 기운이 이 땅에서 불붙는 천국의 심지로서 살 수 있는 삶, 이 삶은 객식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의 객식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마땅히 세상으로 보내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 집사람과 함께 미국에 간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반이나 있었으니까 호텔에 머문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마는 평일에는 그 바쁘게 돌아가는 미국생활에서 우리가 방문했다고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직장생활을 그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온 가족이 다 나가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만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객식구만 남아있습니다.
객식구만 남아있고 그 집의 가족은 전부 나가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으로 다 보냄을 받아 나가는 사람들처럼 다 나가게 되고, 오직 객식구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객식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집사람은 독일에서 뉴저지로 보냄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직장으로 다 보냄을 받아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반드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지만 예수님의 객식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세상 중에 속해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르사'라는 말이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가족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열두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구약의 열두지파를 대체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인데, 열두지파의 본래의 의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열두제자로 넘어오면서, 열두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열두제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 하고, 그 열두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가족이 된 상태에서 천국 사람이 된 상태에서 천구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사는 자들이 사도들이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중에 가롯유다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부르심을 받고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온 자들입니다.
가롯유다를 예수님께로 보낸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입니까?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나라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해서 식민지로 된 나라가 그 가롯유다를 예수께로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낸 사명을 이루도록 요구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가롯유다를 예수님께 보냈고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를 독립시켜라' 하는 사명을 준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과정에서 사명을 띠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과정에서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서 사명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자, 가족이 된다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하게 되고 이 땅에서 같이 있고 싶어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족의 기초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될 때는 사명이 없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다, 이런 목적의식이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그냥 좋습니다.
좋고,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하는 문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거나 결혼한 다음에 둘이서 같이 부딪혀 나가야 할 문제이지요.
결혼에 도달하기까지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무르익어가는 동안에 이런 과제나 사명이 끼어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 태어나서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리저리 둘러본 뒤에 부모가 못 산다고 해서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집에 안 태어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태어남 자체에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과제도 이해관계도 업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식을 기르는 일이 주어지고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어떤 이해관계나 그 어떤 사명이나 그 어떤 목적이 결부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가족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과제를 갖습니다,
'아, 내가 자식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업을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들 이러한 과제를 세상으로부터 갖고 예수님께로 파송됩니다.
예수님께로 보내진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아무 이해관계 없이 목적도 사명도 과정도 없이,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의식이 없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사업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세상과 가족인 거예요, 세상과 가족인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보내진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가롯유다, 특별히 가롯유다를 명시할 때 '가롯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객식구가 뭐죠?
가족이 아닌데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이 객식구입니다.
예수님과 하늘나라의 가족이 아니면서 교회에서 교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있는 자들.
남의 집 식구라도 집안에 머물 때,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에게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외국에서 와서 저희 집에 함께 머물고 있다면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할 때 제 친구는 '할머니, 아줌마' 그럽니까? 아니죠, 똑같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가족인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사도와 예수님의 객식구, 사도는 반드시 가족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인이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인이 가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족 된 자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열두 사도만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용적인 면에서 의미적인 면에서 모두가 사도예요, 보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르심을 통하여 가족이 된 자들이 보냄을 받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은 이 거꾸로 된 객식구들과의 차이,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말씀 중에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통하여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식구가 되는 겁니다.
식구는 한 지붕 밑에서 함께 끼니를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열두제자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이게 상징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라는 얘기지요.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에 연합해서 함께 죽으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얘기해요, 영적인 혈연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자식들이 한 가족이고 형제이듯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자들이 형제요 가족이고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사건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을 쓸 때는 AD 60~70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33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했고 심지어는 오순절 성령강림까지 경험하고,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쓴 글입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몇 십 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실 때의 일을 쓸 때, 이 부르심 속에 마태가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족이 될 수가 없고, 보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이 세상 그 어느 것에 묶여있고 관심에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르셔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세상의 과제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수님께 온 것이고, 예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상의 대상들을 끊어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이해관계와 과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보냄 받은 객식구입니다.
내가 독일에서 보냄을 받아서 뉴저지에 거할 때 객식구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 가족들이 미국의 사회 속으로 다 보냄을 받아 나갈 때 객식구들만 남아있는 거죠.
세상으로 보냄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냄을 받아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실 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나고, 우리가 연애하면서 사랑하는 단계로 접어들 때를 보면 어떤 과제나 목적을 갖고 그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과제나 일들은 전부 그 이후에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지금 사업 때문에 급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 사업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 보냄 받은 예수님의 객식구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천국사람이 되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천국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경험하고서야 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가 써보지 않은 물건 파는 세일즈맨도 아니고, 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으려면 천국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끊어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보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국에서 보냄을 받는 자의 마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고 안전한 보장을 확보할 것인가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거꾸로 예수님께 돌아올 때 가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객식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십자가 붙잡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을 했을 때는 날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날마다 주님의 가족으로 세상에 보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붙잡아 사로잡고 있는 세상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지 그 세상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루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졌을 때 세상의 일들은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기운과 천국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통해서 천국의 기운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지, 세상의 문제를 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을 갖고 와서, 거꾸로 흐름을 역행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 이루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냄을 받으면서 하늘의 기운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세상을 향하여 밀고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병든 자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린 자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냅니다.
병든 자는 여기서 뭡니까? 앞에서 연약함을 짊어지신다고 했습니다.
'병을 담당하시고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다시 말해 천국을 전파할 때 천국사람으로 끌어들일 때 필요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해서 천국을 앞에 딱 세우고 나면 천국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담당하신다는 것은 육체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이 떠맡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병환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살기에는 너무 더럽고 부정한 상

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쳐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천국에 아예 존재가 없는 자들을 천국에서 태어나서 존재가 천국 안에 있는 자들로 바꾸라는 얘기죠, 천국에서 죽은 거니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돈 안 벌고 살기 클럽을 하자!'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에덴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라'
'돈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도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라 이겁니다.

오늘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천국에 달려있는 것이지, 너희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돈 안 벌고 살기 클럽' 그 말 자체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벌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산다, 내가 금은동을 전대에 품고 살아야 살 수 있다, 두벌 옷이 있어야 산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다 귀신들린 겁니다.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는 무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과제로 삼고 내가 이 삶을 경영하고 운영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귀신들린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먹고 살 것은 이끌어 가실 것이고 너는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빠져서 고민이 생기고 고통과 걱정이 생깁니다.

이럴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오는 것은 세상이 주님이 되어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파송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식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에 문제가 있고 괴로울 때 어떡하느냐?
괴롭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세상에 말려들었다는 얘깁니다.
이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부르심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이 없으니까.
십자가는 세상과 천국의 접점입니다, 접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다시금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상문제를 갖고는 절대 천국식구가 못돼요, 천국가족이 못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문제를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서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자식, 사업, 지금의 경제 형편, 끌어안지 말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죽을 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아무 이해관계 없이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내 마음이 떡 하니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죽었던 존재가 거기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병을 고치신다', 이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모든 문제, 내가 놓아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마음이 싹 올라갔기 때문에 남겨진 이 몸의 삶, 이 세상의 삶은 주님께서 떠맡아 주실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것도 또 이 세상에서 잘된다는 척도를 가지고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가족이 되어서 살고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하늘의 기운을 마음으로부터 넣어주시고 마음에서부터 이 육체로 뻗어 나올 수 있는 천국의 심지가 되고 천국의 티내기를 이 세상 속에서 해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부르십니다.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는 십자가가 끼어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객식구로 남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자기들의 과제와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해서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꾸로 방향이 됩니다.
결국은 예수를 가롯 유다처럼 팔고 끝나고 말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시시각각 내 마음에 달라붙는 이 세상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과제들을 부여하며 예수님께로 나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객식구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가족으로 태어남으로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심지어는 내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아서 관계 맺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도들, 하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